

기업 애로 해소 앞장...영암군 적극행정 '빛났다'

대한상의, 전국 지자체·8800여 기업 평가서 1위 선정 15년 갈등 대불산단내 중앙분리대 군비 5억 들여 철거 운송시간 단축 등 파급효과 극대화...기업 경쟁력 향상

15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기업과 주민 사이 갈등을 해결한 영암군이 기업들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 전국 1위에 선정됐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7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 1위(100점 만점에 76.8점)는 영암군이 차지했다.

영암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업종이 지역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주요 길목마다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들리기가 어려웠다.

이에 영암군은 올해 군비 5억원을 투입해 대불산단 내 나불로 중앙분리대(가로화단)를 철거,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고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결했다.

대불국가산업단은 서남권 산업 중심지로, 산단 입주 375개 기업 중 70-80%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다.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들로, 대불부두를 이용해 대형조선소가 있는 울산·거제·해남 등으로 운송해야 한다. 그럴려면 대불산단 주 진입 도로인 나불로·나불로를 거쳐야 하고, 대형 선박블럭을 실은 '트랜스포터'는 연간 최대 6000회가량 이 도로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도로 중앙분리대 탓에 회전 등 차량 운행에 제약이 따랐다. 운송 장애가 되는 도로 지장물 철거는 입주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전남도·영암경찰서 등과 협력해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았다.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것이었다. 대신 고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설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고, 오는 6월까지 나불로 중앙분리대 정비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인 나불로의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암군 제공>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트랜스포터의 공차 운행시간을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날 새벽 5시30분)에만 허용하던 것을 지난해 7월부터 주간 운행시간(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2-4시)에도 다니도록 해 입주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의 이같은 조치는 입주업체들의 운송비 절감, 수주물량 확대, 선박블럭 조립물량 증가, 운송업체 적재중량 증가, 운

송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쏟았던 노력이 수주 확대와 산업단지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희 기자 jbh@kwangju.co.kr

강진군 공동브랜드 '강진품에' 날개 '강진책방' 등 지역 특산물·특화상품 적극 활용

강진군이 강진을 상권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동브랜드 '강진품에'를 개발, 지역 특산물과 특화상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진군 공동브랜드 '강진품에'를 적용한 지역특화상품 '강진책방'.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강진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및 기타 특화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강진품에'를 개발했다.

지난해 8-9월 지역 및 명칭 기반 브랜드와 인물 및 역사 기반 브랜드, 지역 특장 기반 브랜드 후보 15개를 대상으로 1차 선호도 조사를 통해 4개 후보로 압축했다.

이들 4개 후보와 지금까지 사용했던 '청자골강진'을 추가해 총 5개의 브랜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진품에'가 48%의 득표율로 최종 선정됐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청자골강진'은 16%를 얻는데 그쳤다.

공동브랜드와 함께 다산초당을 형상화한 캐릭터 '강이', 모란공원을 형상화한 '진이'도 선보였다. '강이'는 지역자원을 통한 문화관광상품에, '진이'는 농수축산 프리미엄급 상품에 활용하고 있다.

강진군은 공동브랜드 '강진품에'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책방인 '강진책방'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 중앙로상인회 협동조합인 전남마을상권관리협동조합은 특화상품 포장재에 적용하고 있다. 강진과 나주를 오가는 국도 13호선 풀치터널 조형물에도 '강진품에'를 적용하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강진을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에서 강진군이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진읍 상업지역 내 10만㎡ 400여 상가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34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68억원을 투입, 읍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편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청자, 대한민국 문화상품 공모 대전서 금상 수상

강진지역 청자업체 '토우'의 김유성 대표가 '청자 연리문 금채 다기(사진)'로 '2020 대한민국 수공예공모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손끝으로 만드는-광주다움'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0 대한민국 수공예공모대전'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광주시 지원으로 열렸다.

우수 수공예 및 창의 수공예 문화상품 발굴과 공예인 창작의욕 고취로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도·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광주시 지원으로 열렸다.

우수 수공예 및 창의 수공예 문화상품 발굴과 공예인 창작의욕 고취로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도·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광주시 지원으로 열렸다.

김유성 대표는 "이번 공모전에서 '청자 연리문 금채 다기'가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청자 문화를 알리고, 청자 예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연리문 금채 다기'를 출품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출품작인 '청자 연리문 금채 다기'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가 지난해 추진한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작품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관산읍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최근 아이가 태어난 동두마을에서 올해 첫 '행복한 엄마, 출산가정 금줄치기' 행사를 열었다.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단체는 지난달 25일 평촌에 사는 조모 어르신을 찾아 생신상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장흥군 관산읍이 장수 어르신에게는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갓 태어난 아이 집에는 무병장수를 바라며 금줄을 치는 전통을 응용한 이웃사랑을 퍼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 어르신엔 생신상을...갓 태어난 아기엔 금줄을... 장흥 관산읍 전통 가미한 이웃사랑 '눈길'

2일 장흥군 관산읍에 따르면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승주·천충열)는 올해 지역사회 유대감 향상과 이웃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협의체 중점 사업으로, 매달 지역 내 장수어르신을 찾아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것이다.

관산읍 변영회·이장자치회·새마을부

녀회·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는 지난달 25일 평촌에 사는 조모 어르신을 찾아 생신상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천충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단순히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는 것이 아닌 어르신을 공경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병장수를 바라며 금줄치기 행사도 하고 있다.

금줄치기는 아이를 낳은 후 삼칠일(21일) 동안 금줄을 쳐 아이의 성별을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해 부정을 막는 우리나라 전통풍속이다. 이웃과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민들이 화합

하던 금줄치기 전통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주민들은 직접 새끼줄을 꼬고 숯·한지·솔가지 등을 끼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출산가정 때문에 금줄을 달아주는 행사다.

장흥군 관산읍은 최근 동두마을에서 올해 첫 '행복한 엄마, 출산가정 금줄치기' 행사를 했다.

관산읍 변영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정성껏 마련한 산도미역과 아기 옷 등을 전달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kykim@

강진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땀 10만원 상품권

강진군이 지난 달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강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020년부터는 원동기 운전면허증 반납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고령자도 올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